

8/9월 선교편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기다리는 가정입니다.



살롬~

일본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8, 9월 선교편지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사실 이 기도편지를 6월 말에 완성되어 7월 초순에 보내 드리려 했었는데, 지난 한 달간 정말 많은 일들이 저희 부부에게 있었답니다. 그 일들은 대부분 저희의 생각과 다른 일들로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편지를 써야 할지를 몰라 그냥 바람이 조금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선교편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전해지기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늦어버린 선교편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와 늘 잊지 않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희 가정을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과 교제의 시간

지난 1년간 많은 분들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안식년은 축복이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와 가정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주일에는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보고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에는 전라도와 상주 외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는 가운데, 일본 선교에 대해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복음 안에서 치열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 보며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2nd 사역 준비!

출국을 앞두고 저희 부부는 함께 섬기게 될 [코다이라 채플]의 목사님 부부와 온라인 미팅을 가졌고, 사역의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다이라 채플의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 나가게 하고, 아름다운 협력 사역이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학교를 알아보고, 도쿄 생활을 위해서 집을 구하는 중입니다. (기도편지를 쓰는 이 시간에도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에서 집을 구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삿포로에서 한국, 그리고 다시 도쿄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가전, 가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데, 8월 한달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한국의 문화와 한국 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지낸 아이들이 참 기뻐합니다. 정들었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또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다인 - 중2, 시온 - 초6, 하늘 - 초3)

황진희 선교사는 수술 후 첫 검진을 7월 초순에 받았고, 시온이도 지난번 손목골절로 인해 심은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7월 말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황선교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약 복용(5년)과 정기검진(6개월 마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가정이 아프지 않고 건강히 일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이제 도쿄로 갑니다!

저희 가정은 기존에 사역하던 홋카이도를 떠나, 도쿄로 나아갑니다.

일본의 수도이자, 심장인 도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코다이라 채플]를 섬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을 통해 도쿄에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가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저는 주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과 노방전도/기도모임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아내인 황선교사는 아이들의 일본인 친구들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여러 계획과 생각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도시, 도쿄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새로운 집을 구하고, 새로운 이웃들을 잘 사귈 수 있도록,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이들 소식

아이들에게 지난 1년에 대한 소회를 어제 물어보았답니다. **다인**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했고, **시온**이는 훈련이 되는 1년이었다고, 끝으로 **하늘**이는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학업과 생활에 성실히 임해준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뻛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후 일정

- > 8월 4일 : 수영로교회 (선교팀장 기도회) / 마지막 고별설교 및 작별 인사의 시간
- > 8월 6일 : 출국 (김해공항 / 07:50)
- > 8월 중순 : 일본 연휴 (8/13 ~ 8/16)
- > 8월 하순 : 아이들 학교 개학 (8/21 전후)



> 코다이라 채플의 모습
(저희 가정이 섬길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드러질 예배와 기도, 찬양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